

월/요/광/장

강은국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이 '민족문화', '전통문화', '문화도시', '문화시' 등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들이다. 누군가는 "문화는 생존전략"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문화'는 그만큼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 15주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중국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폭넓은 이해를 위한 작업의 하나로 숫자 속에 담겨 있는 중국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숫자에는 민족마다 독특한 문화가 함축돼 있다. 한민족은 출수를 선호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짝수를 선호하는 것 등이다.

숫자에 감춰진 중국문화

중국에서 지존을 상징하는 기본숫자는 '1, 5, 9'다. 1은 '一人, 天子'('書呂刑傳')에서와 같이 '제왕'을 뜻하며 5와 9도 같은 의미다. 가장 성스러운 상징하는 숫자는 '3, 7, 8'이다. 3은 불교의 '삼승(三乘)', 도교의 '삼신산(三神山)' 등에서

어번창해진다 뜻 가진 '발(發)'과 음이 비슷해 가장 선호하는 숫자다.

모든 사물의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는 '1, 3'이다. 1은 만물의 시작, 즉 본원을 의미한다. 3은 세상 만물의 바탕이 되는 기본수로 쓰인다. 음양이 조화되면서 화합을 상징하는 숫자는 '2, 6, 9'다. 2는 서로 대립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두 사물을 가리킨다.

기쁨을 표현할 때도 '희(喜)'를 겹쳐 '囍(쌍희)'로 쓴다. 선물은 언제나 짝수로 하는 선물문화, 손님을 초청할 때는 물론 집

번 제를 지내는 것을 뜻한다.

기본숫자는 서로 어울려 보다 큰 수를 표시하며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1과 8이 어울린 18은 그 음이 '요발(要發)'과 비슷하기에 '돈을 벌겠다', '부자가 되겠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58은 '오발(吾發)'의 음과 비슷하고 '吾'는 '나'를 뜻하므로 '내가 돈을 벌겠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98도 음이 '구발(久發)'과 비슷해 '계속 돈을 벌다'의 의미다. 따라서 중국 사람들은 18, 58, 98 등의 숫자를 매우 선호한다. 반면 동일한 9와 8이 합쳐진 89는 상당히 꺼리는 숫자이다. 89의 음이 '발주(罰酒)'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심리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여실히 드러난다. 물건 값에 18, 58, 98이 들어가면 그 질이 어떻든 즐겨 사지만 89와 같은 숫자가 있으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숫자에는 이렇듯 다양한 문화가 담겨 있다. 한국 사람들이 숫자 속의 중국문화를 이해하면 중국과의 교류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문화를 알면 '人民幣(중국화폐)'가 보인다든 말도 있지 않나.

<중국 푸단대 교수·전남대 교환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산업화 가능성 확인한 디자인비엔날레

'빛'을 주제로 한 제 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3일 30여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디자인의 과거와 미래, 현재를 조명하면서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광주지역의 주력산업인 광산업을 새롭게 조명하고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 2회 디자인비엔날레는 관람객의 69.4%가 대체로 행사 내용에 만족하는 등 운영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대회기간 동안 23만여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입장권 수입만 7억여원에 이르렀다. 특히 시·도민이 선정한 '남도 디자인 100선'은 우수한 남도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광산업 관련 디자인도 선보여 광주가 광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든 긍정적 평가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호평 속에서도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겼다. 이번 행사에서 지역 디자인 산업과 제품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시기간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광주디자인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재단과 광주디자인센터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지역산업과의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지역 디자인 산업 및 경제활성화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자인 산업화에 대한 노후와 인력이 풍부한 광주디자인센터에 일정 부분의 역할을 맡겨 지역산업화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 거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앞으로 세계적인 문화 전시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

백두산 직항로 남북교류 활성화 계기돼야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내년 5월부터 시작된다.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광화위원회는 지난 3일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을 비롯 개성관광과 금강산 비로봉 관광 등에 합의했다. 대북 관광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백두산 직항로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서울에서 백두산 삼지연관광까지 1시간내에 갈 수 있는데다 중국을 거쳐 지 않고 북한을 통해 민족의 영산(靈山) 백두산에 오르는 상징성도 있다. 직항로가 차질없이 개설되면 남북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 틀림없다.

백두산 직항로는 지난 10월 남북정상 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는 첫 결실이다. 남북은 오는 14~16일 총리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남북합의사항에 대한 북한의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광업계는 직항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쪽 백두산 지역은 천혜의 자연이 보존돼 경관이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아시아는 지난 2005년 북측과 백두산관광을 연내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마찰을 빚으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까다로운 입북절차와 상대적으론 비싼 관광비용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합의를 신속히 이행시키려는 남북의 의지와 관광사업을 통해 외화 획득을 노리는 북측의 실리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처음 열리는 백두산 직항로는 남북교류 활성화의 획기적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유 병 두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한자성이 있다.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이해하려는 뜻으로, 맹자(孟子) 이후(離婁)에 나오는 ‘역지즉계연(易地則皆然)’에서 유래한 말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러한 의미의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한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봐”라는 말이 그것이다. 어떤 사람이 급한 응무를 보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진입을 하면 안 되는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했다. 이 와중에 반대

는 “4주나 되는 상해를 입히고도 왜 구속이 되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사기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피해금액이 1천만원인 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그까짓 몇 푼이나 된다고 1천만원 가지고 그리 난리냐, 값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한다. 피해자는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1천만원이나 되는 내 돈을 떼어 먹느냐. 이런 나쁜 사람이 왜 구속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자신이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직진신호로 바뀌자마자 출발하던 자동차와 충돌할 뻔 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좌회전하던 자동차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에 대하여 “어떻게 신호 떨어지자마자 출발하나, 성질이 무척 급한 사람이네”라고 말한다. 직진하던 자동차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 “황색신호변 정지를 해야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네”라고 말한다. 검사실에 근무하다 보면 비슷한 일을 종종 겪는다. 예컨대 진단서상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극명히 상반된다. 가해자는 “별로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4주나 되는 진단을 끊어와 소란을 피우느냐”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피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에 따른 상반된 태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은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스스로 생각하여 어떠한 현상을 대할 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진다면 좀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검사도 사건 수사를 할 때 조금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본다면 당사자들이 가슴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건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기 고

전 주 언

현대사회를 흔히들 ‘변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 역시 마찬가지다. 각 자치단체들은 바뀌어가는 환경에 대비, 지방행정혁신이란 이름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민서비스 분야에서는 ‘고객’인 주민에게 눈높이가 맞춰지고 행정서비스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개발시대를 돌이켜보면 주민 중심이 아닌 공직자 중심의 행정으로 ‘관(官)’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 창조적 발상이나 도전, 경쟁력이란 말은 이윤을 내야하는 기업의 얘기로 흘러 버렸고 ‘미소’와 ‘친절’이 최상의 서비스라는 고

하는 주민들의 기대가 충족해 있었다. ‘365일 민원봉사실’은 개소 7개월 동안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하루 평균 민원처리 실적도 업무를 시작한 지난 3월 110건에서 10월에는 38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사무지구를 찾은 모든 사람들의 민원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것이다. 처음에는 공휴일·야간근무를 해야하는 직원들의 불만과 전국 최초의 시도라는 열려도 있었다. 하지만 ‘찾아가는 감동행정’ 실현에 대한 구청장 의지에 직원을 모두가 공감했고 지난 5월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2007 지방행정혁신 브랜드 사업’에

지방행정 혁신 일구는 ‘365 민원 서비스’

정관념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행정 수요가 다원화되고 환경 또한 급변하면서 주민서비스 수준은 물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주민서비스의 가치도 ‘만족’에서 ‘감동’으로 발전했다. 무엇보다 ‘고객감동’은 성공적인 지방행정혁신의 필수 조건이 되었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에 대응해 행정 조직과 구성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고객감동’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때에 ▲고객이 편리한 방식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 3월 연중무휴로 밤 10시까지 행정민원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365일 민원봉사실’을 전국 최초로 사무지구에 만들었다. 주 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되면서 공무원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주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 관공서나 금융기관의 문이 쉬는 날에도 열렸으면

라는 것을 실감케했다.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기업체마다 대부분 다양한 사회 경험과 활동을 중요시한다는 점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입사 지원자는 자신들이 다녀오지도 않은 배낭여행을 책을 보고 마치 다녀온 것처럼 꾸며서 써낸 것이다. 대학생들이 회사에 취직하면서 제출하는 이력서에도 허위 경력이나 경력의 실적을 직접 겪어보니 당혹스러웠다. 이게 현실이

취업 하면 그만이지 ‘거짓말 이력서’ 난무

신입사원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다 우연히 두 지원자의 해외 배낭여행 경험을 쓴 내용 일부가 비슷한 점을 발견했다. 코스, 머문 시간, 들른 식당 등이 일치했다. 두 입사 지원자는 자신들이 다녀오지도 않은 배낭여행을 책을 보고 마치 다녀온 것처럼 꾸며서 써낸 것이다. 대학생들이 회사에 취직하면서 제출하는 이력서에도 허위 경력이나 경력의 실적을 직접 겪어보니 당혹스러웠다. 이게 현실이

無 等 鼓

“3막5장이 끝나면 주연 배우는 물러난다. 떠나는 사람은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 법이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이원종 전 총북지사가 한 말이다. 그는 당시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던 ‘당선 0순위’ 후보였다. 그는 “도민들이 보내준 사랑을 톡판에 새기듯 가슴에 간직할 채 경법하게 살아야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지사직을 홀출 털었다. 그의 은퇴 선언에 사람들은 “정상에서 물러설 줄 아는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감탄을 보냈다. 그러나 정치권에 이전 지사 같이 신선한 퇴장은 드물다. 정치인에게 직업적 특성

을 쟁취했다. DJ의 은퇴 번복을 가장 비난했던 이가 이회창 전 총재다. 그런 이 전 총재가 ‘정계복귀’라는 약속파기 시나리오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돌아오는 ‘올드 보이’, 이 전 총재의 출마가 대선 판의 ‘관객모독’에 그칠지, ‘3수 성공’으로 이어질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오중승 정치부장 joh@kwangju.co.kr

은퇴 번복

2002년 노무현 후보에 패배한 이회창 후보의 은퇴 선언도 극적이었다. 이 후보는 고별사를 읽으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DJ는 정계은퇴 번복과 4수 출마로 대선 상 정면이 없다. 선거 패배나 부패, 비리 스캔들에 얽혀 강제퇴출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 꺼내드는 카드가 정계은퇴 선언이다. 정치인의 은퇴는 지지자들에게는 좌절의 회한을, 반대자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선사한다. 그러나 약속은 깨지기 마련이듯 은퇴는 번복되기 일쑤다. ‘프랑스의 국부’ 사

수입 새우젓 국산 둔갑 강력 단속...원산지 표시 정확히

국내 새우젓 전국 소비량의 70~80%를 생산하고 있는 신안·목포·영광 등 전남 서·남해안 첫새우잡이 어민들이 최근 새우젓 가격 급락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전년 대비 3분의 1까지 폭락했다. 첫새우잡이 어민들은 이렇듯 ‘새어민회’는 것갈류 소비 감소와 함께 수입 새우젓이 갑작스런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을 비롯 일본, 베트남 등에서 생산, 수입되는 새우젓의 경우 국내산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국내산 새우젓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선수품과 유류대는 하루 멀다하고 치솟고 있고 인건비마저 크게 올라 지금의 어가로는 생계 유지조차 어려울 실정이다. 새우젓을 보관하거나 저장, 판매하는 경우 새우젓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여 어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 관계 당국에서는 감찰철을 맞아 수산물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진열,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어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박점술·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지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시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홍람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시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